순천대 정구부, 전국체육대회서 역대 최고 성적

사회체육학과 소속 정구부, 단체전 준우승 차지

개인전 복식 3위·단식 3위 등 우수한 성적 거둬

국립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간 서울시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사회체육학과 소속 정구부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47개 종목에 30,0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에 순천대 정구부는 사회체육학과 김재필 교수(감독)와 배상종 코치의 지도로 6명의 선수가 참가해 단체전 준우승과 개인전 복식 3위, 단식 3위를 차치하는 등 그동안 참가한 전국체육대회 중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전국체육대회는 국내 대회 중 선수들이 그동안 쌓은 기량을 견주기 위해 가장 많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는 대회이고, 각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대회로, 이번 수상이 참가 선수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대회에서 개인전 복식 동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수상한 4학년 허민 선수는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이번 대회에서 소중한 메달을 획득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감독님과 코치님의 열정적인 지도와 대학 구성원, 지역민들의 응원이 있어 가능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인전 복식 동메달 허민(4학년), 정철민(1학년)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든 순천대학교 정구부.

▲개인전 단식 동메달 채종현(4학년)

▲단체전 은메달 허민, 채종현, 강재구(4학년), 이민석, 장준영(3학년), 정철민(1학년).

김미란 기자

순천대, 573돌 한글날 맞아 외국인 유학생 한글 백일장 개최

중국 교환학생 장즈윈 최우수상 영예안아 … 총 6명에 총장상·상금 수여

국립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지난 11일 한글 창제 573돌 한글날을 맞아 "제1회 순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한글 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의의와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한글백일장에는 세계 30여 개국에서 순천대학교로 유학온 28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해 한국어 및 한국 문화체험 수기 등 자유 주제로 우리말 실력을 견주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1일 573돌 한글날을 맞아 열린 외국인 유학생 한글 백일장 대회 수상자들과 고영진 총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회 최우수상은 중국에서 순천대 일본어일본문화학과 교환학생으로 온 장즈윈 학생(광서사범대학)이, 캄보디아의 미아피셀 학생이 우수상(한국어학당)을, 우즈베키스탄의 맙두나 학생이 장려상(중어중문학과)을 수상하였고, 가작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학생에게 총장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즈윈 학생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외국인 유학생 한글 백일장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기쁘다"면서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혹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겪은 일들을 되돌아 보며 지난날을 추억해 볼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우수상을 수상한 미아피셀 학생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수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국제교류교육원 천지연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내년에는 전남 지역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확대하는 등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한국에 대한 이해 및 문화교류 활성화와 외국인들의 한글사랑을 높이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수현 기자

제2회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 성황

평생학습으로 전남 도민들의 꿈을 잇고 나누는 축제의 장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순천시와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제2회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가 지난 10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115개 기관 3만 여명이 방문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평생학습, 전남을 잇다! 사람을 잇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115개 평생교육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또한 3만여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소통과 축제의 장이 됐다.

이번 박람회는 도내 22개 시군과 각 지역 평생학습 기관·단체들의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 반려·여행 인문학 강좌가 열렸다. 특히 뒤늦게 한글을 배운 문해학습자들이 배움의 기쁨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한 시화전 전시회와 함께, 우수작품 출품자 47명이 수상을 하는 영광을 안았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평생학습 도시 순천'을 슬로건으로 개설된 순천시 홍보관은 '에코투어 1번지'라고 불리는 순천의 자랑인 순천만의 갈대 숲길, 광활한 갯벌그 위로 흑두루미가 날아오르는 광경을 아름답게 표현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제2회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 현장.

허석 순천시장은"이번 박람회를 경험으로 순천에서 유치할 2020년'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민들의 삶의 미래를 평생학습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기존의 박람회 틀에서 벗어난 미래형 평생학습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정순이 기자

순천드림스타트, '우리고장 역사탐방' 운영

낙안읍성 민속마을로 떠난 시간여행! 우리고장 역사 바로 알기

순천시는 지난 12일(토) 드림스타트 아동 30명과 함께 낙안읍성 민속마을로 우리고장 역사탐방을 다녀왔다고 전했다.

'우리고장 역사탐방'은 내가 사는 고장의 바른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와 함께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등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을 길러 주기 위해 마련됐다.

낙안읍성 민속마을 탐방을 마친 아이들은 낙안면 두능마을에 위치한 이화서당에서 김대중 훈장님과 함께 하는 바른 인성 기르기 교육 및 대나무필통에 명언명구 쓰기, 탁본을 만들어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지금까지 낙안읍성은 임경업군수가 처음으로 성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김빈길 장군과 낙안읍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바로 알게 되었다며 우리고장 역사탐방에 참여하기를 잘한 것 같다"고 기뻐했다.

순천시 드림스타트에서는 지역사회 내 여러 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곽송호 기자

순천일보는 주1회 발행합니다

순천인재육성장학후원회 장학기금 1억 전달

순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142억 달성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후원회(회장 방성룡)는 지난 10월 14일 1억원의 장학기금을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제3대 후원회장으로 위촉된 방성룡 후원회장은 취임 이후 활발한 모금활동으로 6억원의 장학기금을 추가로 장학회로 전달했다.

후원회는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31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했다. 올해는 210여명의 정기 회원을 신규로 모집해 매월 150만원의 후원금을 추가 모금하고 있다.

방성룡후원회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재단 임원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200억원 조성 목표액 달성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2001년 태동해 2019년 10월 현재 142억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올해도 11월 중 모집 공고를 통해 지역인재에게 1억8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지연 기자

여수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인 가나헌을 방문한 청암대학교.

청암대와 함께하는 '더불어 행복 캠프'

여수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가나헌 방문

청암대학교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암대학교와 함께하는 더불어 행복캠프"를 여수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인 가나헌을 방문하여 인성교육, 식사보조 및 제3회 더디(tardy)운동회 등을 진행하였다.

가나헌 김명례 원장은 "더불어 행복캠프"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동이 사회복지과 학생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청암대학교 사회복지과 류동수교수는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통하여 사회복지 현장 역량을 키울 수 있고, 학생들의 인성함양 및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써 이미지 제고 및 기회를 가져 감사하다"고 전했다.

청암대학교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수현 기자

지난 14일 열린 지역 중소기업 현장 탐방에 참여한 취업을 희망하는 청·장년들.

취업 희망 청장년과 함께 중소기업 탐방

순천시, 희망자 21명과 함께 관내 우수 중소기업 방문해

순천시는 지난 14일(월)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장년들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탐방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현장탐방은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표현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역 중소기업 중에는 대기업 이상의 복지혜택과 업무환경이 훌륭한 중소기업이 많은데 비해, 회사 규모와 인지도 부족으로 구직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동양인더스트리와 BPC(주)를 탐방 기업으로 선정해 기업탐방을 희망하는 청장년 21명과 함께 탐방 기회를 가졌다.

이번 탐방대상에 선정된 ㈜동양인더스트리(연 매출액 100억, 직원수 40명)는 글라스 라이닝, 화학 플랜트 설비, 세라믹 파우더 코팅제를 생산하는 기업이며, BPC(주)(연 매출액 200억, 직원수 42명)는 볼트와 너트류 제조업체다.

기업탐방은 기업 브리핑, 그리고 기업의 근무환경, 복지제도, 채용프로세스 등 취업정보 안내와 공장투어로 진행됐다.

이날 함께 탐방에 나선 허석 순천시장은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환경과 기업이 원하는 직무능력이 서로 매치되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구인과 구직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이번 탐방이 좋은 일자리, 좋은 인재를 구하는 마중물이 되어 중소기업은 신명나게 일하고, 지역의 청년들은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일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순이 기자

순천시, 19일 '청소년 휴(休) 프로젝트' 운영

순천시(시장 허석)는 오는 19(토) 오후 1시부터 문화의 거리 내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야외무대에서 청소년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년 휴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순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힐링 체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 수련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련관의 역할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5월부터 휴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또한,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을 증진하기 위한 청소년문화프로그램, 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트레스 날려버려!"라는 주제로 각종 체험부스 운영(물풍선 던지기, 표적 맞추기, 천연슬라임 만들기, 반려식물 심기, 자외선팔찌 만들기), 즉석 길거리 노래방, 수련관 홍보 부스, 간식 부스,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즉석길거리 노래방은 현장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함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순천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어울림의 장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건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건강한 청소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란 기자